

『新增韻鏡易解大全』 중 字書を 인용한 註釋 연구*

배 규 리**

국문초록

『新增韻鏡易解大全』에 대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고에서는 『新增韻鏡易解大全』에 인용된 자서 문헌을 소개하고, 字書を 인용한 주석에 대해 분석하였다. 『易解大全』은 『韻鏡易解』를 증보할 때 漢籍을 참고하여 대량의 주석을 추가하였다. 그 중 인용 빈도가 높은 자서로 『玉篇』, 『廣韻』, 『字彙』 등이 있고, 각 글자의 형, 음, 의 등 총체적 면모에 대하여 참고하여 풀이하였다. 『易解大全』 주석은 “易解”라는 서명과 같이, 처음 『韻鏡』을 접하는 초학자들에게 에도 시기 『韻鏡』 입문서로서의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 사료 된다.

[주제어] 성진, 신증운경역해대전, 인용 문헌, 자서, 주석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II. 『新增韻鏡易解大全』에 인용된 字書 |
| II. 『新增韻鏡易解大全』 소개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한국의 중국어학 연구는 대체로 중국 문헌의 한자음과 한국 문헌 중 이전의 중국어 및 한국 한자음을 기록한 서적이 주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 연구 대상에는 『廣韻』, 『中原音韻』 등의 중국 음운학 서적, 『洪武正韻譯訓』과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간행된 한국 문헌,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등의 회화 서적이 포함된다. 최근 중국어학 연구 대상은 지리적 범위를 확장시켜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한자 문화권을 아우르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간 지식 교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개별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新增韻鏡易解大全』(1718, 이하 『易解大全』)은 한국의 중국어학계에서 아직 주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제4장 제2절 『신증운경역해대전』 주석 고찰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강사 / gyureeb@dankook.ac.kr

목받지 못한 문헌 중 하나다. 이는 일본 沙門 盛典(1663~1747)에 의하여 지어진 等韻圖이며, 중국 『韻鏡』에 대한 註釋書다. 또한, 이 책이 일본의 『磨光韻鏡』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도 알려져 있다.¹⁾ 盛典은 『韻鏡易解』(1691)²⁾를 편찬하였고, 이후 『韻鏡易解』를 곁고 더하여 『易解大全』을 완성하였다. 이 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韻鏡易解』의 내용에 기초하여 증보한 대량의 주석이다. 注解는 후대 사람들이나 현인의 제자가 원문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易解大全』은 작가 본인이 주해를 달아 설명하였다. 이 책은 經, 史, 子, 集類 漢籍을 대량 인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깊이 연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³⁾ 또한, 『易解大全』의 주석이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인용 書目과 凡例를 명기하지 않아 『易解大全』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易解大全』의 인용 서적을 정리하여 『易解大全』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易解大全』의 인용 서적 중 소학류 문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⁴⁾ 字書로부터 출발하여 『易解大全』 주석에 나타난 인용 문헌을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저자 盛典이 인용한 문헌의 특징과 인용 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早稻田大學 도서관 소장본인 享保 3년 『新增韻鏡易解大全』을 참고하였다.

Ⅱ. 『新增韻鏡易解大全』 소개

沙門 盛典(Jōten, 1663~1747)⁵⁾은 일본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7)의 승려다. 그의 일생과 궤적에 대해 상세히 기록된 바가 없어 실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佛教大辭典』(1974)에 따르면, 盛典은 眞言宗 승려다. 그는 “실담 자모와 『韻鏡』 등에 정통하였다.”고 전한다.⁶⁾ 또한, 盛典은 일본 국학과 儒學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悉曇字記指南鈔』, 『韻鏡易解』, 『韻鏡字子』, 『新增韻鏡易解大全』, 『讀書諳心編』, 『伊呂波童蒙抄』 등의 저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易解大全』은 盛典이 저술한 日本 『韻鏡』 연구서⁷⁾로, 부록 「新增韻鏡字子大全」을 포함하여 총 5권으로

1) 中澤信幸, 『中近世日本における韻書受容の研究』, おうふう, 2013, 173쪽.

2) 『韻鏡易解』는 序文에 따르면 元祿 4년(1691)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上之本卷, 上之末卷, 下之本卷, 下之末卷으로, 총 4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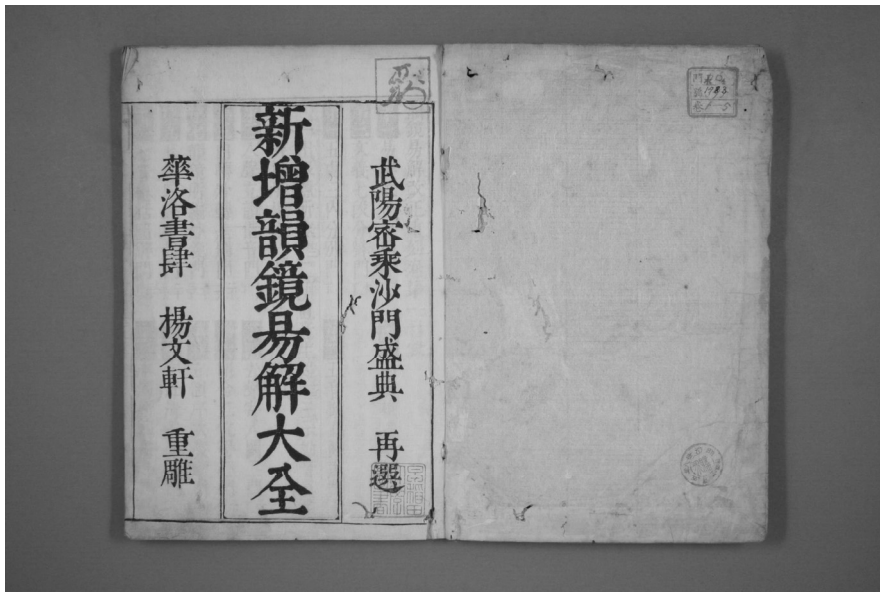
3) 일본 학계에서 福永靜哉의 『近世韻鏡研究史』(1992)는 일본 운경 연구사를 소개한 바 있고, 이 책에서는 『新增韻鏡易解大全』의 출판 배경과 저자 盛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뒤이어 『新增韻鏡易解大全』과 전편인 『韻鏡易解』를 비교한 연구로 中澤信幸(2004, 2006, 2013)이 있고, 일본 한자음에 대한 연구로 湯沢質幸(2004)이 있다.

4) 『易解大全』 중 인용된 문헌은 소학류 문헌 외에도 『論語』, 『試經』, 『孟子』, 『孝經』, 『史記』, 『悉曇藏』, 『漢書』, 『禮記』, 『文選』, 『性靈集』, 『太極圖說』, 『易經』, 『類書纂要』, 『風俗通』, 『大日疏』, 『淮南子』, 『白虎通』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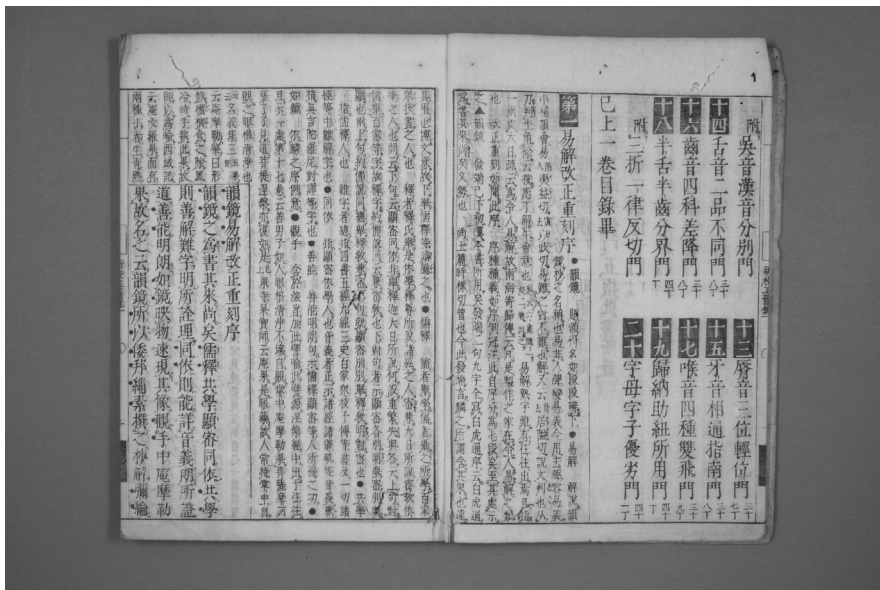
5) 福永靜哉의 『近世韻鏡研究史』에서는 대략 1663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6) 郷貫不詳. 出家歸屬眞言宗. 鉆研博學, 特別精通于悉曇字母, 律並, 韻鏡. 望月信亨(編), 『(望月)佛教大辭典』, 世界成典刊行協會, 1974.

7) 『韻鏡』 연구서란 중국 宋代 『韻鏡』을 연구한 서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일본 근세 시기에 다수 출판되었다. 『韻鏡』이 일본으로 수입된 이후, 明了房信範은 이에 대한 1252년에 『韻鏡』에 대한 해독을 시도하였고, 이후 1404년 『指微韻鏡私抄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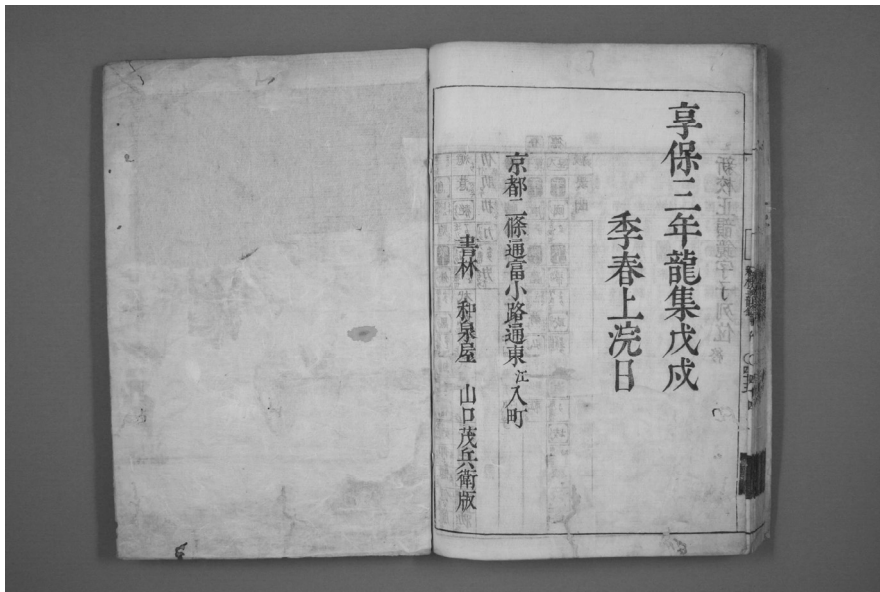


〈그림 1〉『新增韻鏡易解大全』 卷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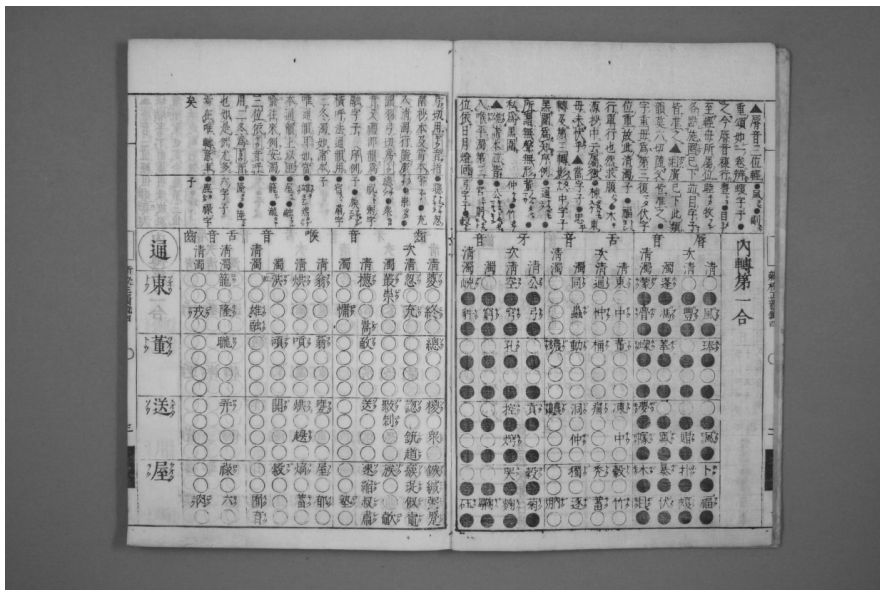


〈그림 2〉『新增韻鏡易解大全』 주석

『韻鏡紀聞』 등 『韻鏡』 연구서가 간행되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無絃의 『韻鏡切要鈔』(1626), 有朔의 『韻鏡開竅』(1627)을 필두로 하여 여러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韻鏡』이 연구되었고, 이들의 연구는 文雄의 『磨光韻鏡』(1744)으로 이어졌다.



〈그림 3〉『新增韻鏡易解大全』卷五



〈그림 4〉『新增韻鏡易解大全』韻圖

구성되었다.⁸⁾ 『易解大全』의 前身인 『韻鏡易解』는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여 서명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井氏 성을 가진 洛東隱士 늙은이로부터 “易解”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⁹⁾ 『韻鏡易解』의 서명은 『韻鏡』을 처음 입문하는 초학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편찬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¹⁰⁾ 宗咸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지어졌다. 『韻鏡易解起』에 따르면, ‘宗咸’이라는 老翁은 音韻에 정통한 인물로, 그는 盛典이 지은 책이 『韻鏡』을 쉽게 이해하는 데 찬성하며 盛典에게 출판을 권하였다고 한다. 盛典은 몇 번을 고사하다 이 책을 인쇄하게 되었는데, 이때 宗咸의 말에 따라 “韻鏡易解”라 서명을 지었다고 한다. 『韻鏡易解』가 간행되고서 이 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韻鏡易解』가 간행된 지 24년 만에 7천여 부가 인쇄되었고, 이로 인해 『韻鏡易解』 판각 상의 문자가 磨滅되었다. 盛典은 이에 새로이 집고 더하여 『易解大全』을 완성하였다.

『易解大全』의 표지 제목은 “新增韻鏡易解大全”, 권1의 첫 장에는 “武陽密乘沙門盛典 再選, 揚文軒 重雕”라 적혀있고(〈그림 1〉, 〈그림 2〉 참조), 5권의 刊記에는 “享保三年 龍集戊戌 季春上浣日, 京都 二条通富小路通東江入町”이라 기록되어 있다(〈그림 3〉 참조). 『易解大全』의 「韻鏡易解改正重刻序」에 따르면, 『易解大全』은 正德 甲午年, 즉 1714년에 重刊되었다고 기록하였다.

『易解大全』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을 제외한 1~4권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8〉 『新增韻鏡易解大全』 목차

標題	卷	目錄	卷	目錄
韻鏡 易解 改正 重刻	1권	易解改正重刻序	2권	反切所用名目門
		易解撰述緣起序		上豎下橫解說門
		文義七段分釋門		橫韻豎音了解門
		五處三內分別門		橫歸本豎留末門
		五音拗直圖說門		橫相同豎相通門
		入聲立韻借音門		輕重清濁依上門
		去聲寄入闕三門		平上去入依下門
		內轉外轉差別門		六對十二反切門
		開合二位得心門		四同音和圖解門
		韻鏡所編妙義門		異位音和開示門
				類隔圖解指誨門
				雙聲圖解指掌門
				疊韻圖解評了門

8) 이 책은 세로 27cm, 가로 18.5cm이다. 福永靜哉, 『近世韻鏡研究史』, 風間書房, 1992, 562쪽.

9) 『新增韻鏡易解大全』 卷一, 「易解撰述緣起序」: 有洛東隱士老翁井氏宗咸, 善通音律, 寥微韻學, 才名自洌, 舉世許容焉. 一日披閱此草書, 投嘆告其息曰, 凡此解說者, 言詳悉而直示其義品類多, 大盡其要能有信受之者, 設童蒙頑愚使音韻妙, 獲易解焉. 請稱題平易解, 命劔刷氏廣布遐邇矣.

10) 『易解大全』 卷一, 「韻鏡易解起」: 庶欲使初學童子, 爲升高之階梯, 成陟遐之舟車.

標題	卷	目錄	卷	目錄			
		立韻序次淺理門		廣通圖解指示門			
		七音四聲生起門		偏狹圖解救誘門			
		字母清濁分辨門		互用圖解指南門			
		七音總括圖解門		往來圖解多類門			
		本濁新濁用心門		憑切圖解繁多門			
		唇音三位輕位門		憑韻圖解二例門			
		舌音二品不同門		寄韻圖解兩類門			
		牙音相通指南門		寄韻圖解通韻門			
		齒音四科差降門		依假字反究音門			
		喉音四種雙飛門		一字長行反音門			
		半舌半齒分界門		內轉外轉十六門			
		歸納助紐所用門		逐韻通韻融通門			
		字母字子優劣門		音義假字相傳門			
				訓釋假字口授門			
				吳漢二音得心門			
				唐音名目口傳門			
				六書八體文綵門			
				3冊	名乘分別剋生門	4冊	五韻拗直五位之圖
					同歸納字用捨門		四十三轉總標七音總括之圖
同示考出捷徑門	四十三轉圖						
同反切例取捨門							
同筆畫數了知門							
同約八卦畫數門							
同約六十四卦門 (附·就爻凶分辨門)							
同圖六十四卦門							
同口授隣近通門							
同空位傳折紙門							
同歸字圖折紙門							
假名受用文字門							
姓氏假名反切門							
韻鏡大悟方圓門							
反切祕傳開示門							
韻鏡序例目錄 有十科			指微韻鏡大意門				
			韻鏡序作由緣門				
			調韻指微肝要門				
			字母助紐歸納門				

標題	卷	目錄	卷	目錄
		歸字指南諸例門		
		橫呼韻法調熟門		
		上聲去音變化門		
		五音清濁分位門		
		四聲定位了簡門 (附:入聲借音三聲門)		
		有形無刑列圖門		

이 책의 序題는 “韻鏡易解改正重刻”으로, 1권부터 3권까지 『韻鏡』의 서문과 『韻鏡』의 門法을 수록하였으며, 음운학 관련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2, 3권의 항목이 『韻鏡』의 특수 ‘門法’¹¹⁾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易解大全』은 문법 75항이 있는데, 증보되면서 추가된 항목은 人名 反切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韻鏡易解』를 『易解大全』으로 재간행될 때 대부분 추가된 것이다. 『韻鏡易解』는 ‘門法’의 내용만을 싣고 있으나, 『易解大全』은 본문 옆에 원문에 대한 주석을 추가한 구조를 취하여 『韻鏡易解』와 차이를 보인다(〈그림 2〉 참조). 또한, 『易解大全』 4권은 『韻鏡』을 수정한 等韻圖를 수록하였는데 『易解大全』 韻圖의 상단에는 註釋을 달아 音訓을 밝혔다(〈그림 4〉 참조).¹²⁾

『韻鏡易解』와 『易解大全』 중 “易解”는 초학자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뜻으로, 『易解大全』은 원문 옆에 註釋을 더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글자의 어휘에 대한 어원, 석의, 음훈을 수록하여 각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盛典은 음운학, 불교 경전, 經書, 史書 등 다양한 漢文 古籍을 集注하여 책을 간행하였다.

『易解大全』 4권에서는 “오늘 이 『易解韻鏡』본은 대부분 『指南鈔』본을 이어 받았다(今此易解韻鏡本師傳相承大都同指南抄¹³⁾本).”고 하였는데, 이는 운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석을 다는 방식에서도 유사점이 나타난다. 『易解大全』과 같이 본문 옆에 주를 더한 방식은 이전의 『韻鏡』 연구서에서도 종종 유사한 형태로 출현한 바 있으나, 『易解大全』 주석의 내용은 盛典의 독자적인 연구에 따른 것이다.¹⁴⁾

11) 門法은 본래 등운도에서 음운 배열 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李新魁(1986: 286-288)는 門法이 본래 운서의 반절과 운도의 用字에 근거하여 운서와 운도 간 각 자음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특히 등의 차이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등의 차이는 운도 자체를 제작할 때 생길 수도 있고, 운서의 반절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 『韻鏡』, 『七音略』 등의 운도에서 門法의 萌芽를 볼 수 있고, 『四聲等子』에서 문법이 증가된 예를 볼 수 있다. 『韻鏡』이 일본으로 수출된 후, 문법의 수량이 더해져 그 수가 더욱 늘어났다. 특히, 李無末·裴規利(2020: 60-67)에 따르면, 『新增韻鏡易解大全』은 2, 3권에서 姓名學의 색채가 드리워진 문법도 수록하고 있다.

12) 福永靜哉(1992)는 이 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韻鏡易解』의 내용에 기초하여 증보하면서 저자 자신이 주석을 덧붙인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韻鏡』 연구서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모든 연구서가 『易解大全』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13) 『韻鏡指南鈔』 중 ‘鈔’를 『易解大全』에서 ‘抄’로 기록하였는데, ‘鈔’와 ‘抄’는 同字다. 이하 등장하는 일본 『韻鏡』 연구서에 관한 정보는 『易解大全』 1권에 수록된 문헌 설명과 福永靜哉의 『近世韻鏡研究史』에 근거하였다.

14) 예를 들어, 『韻鏡指南鈔』의 上卷 張麟之 序에 대한 첫 주석은 “讀書”로 시작하나, 『易解大全』 卷三의 張麟之 序에 대한 주석은 “指微”다. 또한, 표제에 “讀書”에 대하여 『韻鏡指南鈔』의 上卷에서는 “讀書: 杜律五言, 第二卷, 讀書難字過, 貫酒滿壺頻.”이고, 『易解大全』 卷三에서는 “讀書: 杜律云, 讀書難字過之句, 轉用之歟.”로 싣고 있다. 『韻鏡指南鈔』에서 張麟之 序 원문의 過에 대하여 별도의 표제형 표기를 하지 않고 “廣韻, 平聲, 古禾切, 過所也. 去聲, 古臥切, 誤也. 今從平聲也.”라 하고,

Ⅲ. 『新增韻鏡易解大全』에 인용된 字書

盛典은 『韻鏡易解』를 『易解大全』의 제목으로 간행하면서 음운학 서적, 불교 경전, 經史子集 등 다양한 고적에 근거하여 集注하였다. 『易解大全』에 인용된 서적 중 小學類 문헌도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漢字는 形, 音, 意 등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易解大全』註釋은 주로 字書와 韻書를 인용하여 字音과 字義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적인 인용 字書로는 『玉篇』, 『字彙』, 『說文解字』, 『類篇』, 『續字彙補』, 『五音篇海』 등이 있다.

이 중 字書를 인용한 표제어는 총 281개인데, 위의 문헌의 引用 횟수(중복 계산)¹⁵⁾는 『玉篇』 164회, 『字彙』 52회, 『說文解字』 49회, 字書 10회, 『類篇』 3회, 『續字彙補』 2회, 『五音篇海』 1회 인용되었다.¹⁶⁾ 본고는 인용 빈도가 높은 『玉篇』, 『字彙』, 『說文解字』를 인용한 주석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玉篇』

『玉篇』은 본래 梁 顧野王(519~581)이 543년에 편찬한 字典을 일컫는다. 이 책은 漢代 『說文解字』의 편찬 체제를 따랐다. 이 책은 宋代 陳彭年 등 학자들이 칙령을 받들어 『玉篇』을 重修하였고, 서명은 『大廣益會玉篇』 혹은 『增修玉篇』이다.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大廣益會玉篇』으로, 顧野王의 원본은 소실되었다.¹⁷⁾ 何瑞(2016: 25)는 현존하는 『玉篇』의 판본으로 원각본, 명각본, 청각본, 근대 촬영본이 있는데 그 중 중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으로는 원 건정씨본, 원각본, 명각본 등이 있으며, 주석본도 있다고 하였다. 당 封演的 『聞見記』에 따르면, 『玉篇』이 총 16, 917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현전하는 『玉篇』에는 22, 561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孫強, 陳彭年 등이 계속하여 추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玉篇』은 『易解大全』 중 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字書다. 『易解大全』에서 『玉篇』을 언급한 예는 164例(중복 계산 포함)이고, 그 중 131例는 字音, 49例는 字義, 7例는 字形, 나머지 19例는 기타 사항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 『玉篇』을 인용한 모든 예를 살펴보기에 편폭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예를 간추려 나열하였다.¹⁸⁾

『易解大全』卷三은 “廣韻, 平聲, 古禾切, 過所也. 去聲, 古臥切, 誤也.”로 실고 있으므로, 『易解大全』과 『韻鏡指南鈔』의 주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15) 한 표제어가 둘 이상의 문헌을 기록하는 경우, 각각 따로 횟수를 계산하였다.

16)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玉篇』의 경우 58.4%로 가장 인용 빈도가 높다. 또한, 『字彙』는 18.5%, 『說文解字』는 17.4%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類篇』, 『續字彙補』, 『五音篇海』가 각각 1% 이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	玉篇	字彙	說文解字	字書	類篇	續字彙補	五音篇海	합계
인용횟수	164	52	49	10	3	2	1	281
백분위	58.4	18.5	17.4	3.6	1	0.7	0.4	100

17) 호박안(지), 임진호·김하중(역), 『문자학의 원류와 발전』, 문현, 2009, 74쪽.

18) 인용문과 원문이 다를 경우 주석으로 원문을 표기하였다.

(1) 字音

卷一, 2b, 緇素: 緇, 『玉篇』仄¹⁹⁾其切. 黑色. 素, 先故切. 白也.

[뜻]緇素(치소): 緇, 『玉篇』仄其切. 김정색. 素, (『玉篇』)先故切, 희다.

卷一, 27b, 迂去: 迂, 『玉篇』云, 羽俱切. 廣大也. 曲也. 遠也.

[뜻]迂去(우거): 迂, 『옥편』에는 “羽俱切, 광대하다, 굽다, 멀다.”고 하였다.

卷一, 33b, 問訊: 『玉篇』訊, 思進切. 問也. 辭也.

[뜻]問訊(문신): 『옥편』訊, 思進切. 묻다, 알리다.

卷一, 39a, 齒頭: 『玉篇』頭, 達侯切. 首也.

[뜻]齒頭(치두): 『옥편』頭, 達侯切. 머리.

卷一, 41a, 媒人: 『玉篇』音梅, 謨也. 謨合二姓.

[뜻]媒人(매인): 『옥편』음은 매. 꺾하다. 남녀를 중매하다.

卷二, 38b, 玩蠶: 『玉篇』在含切, 吐絲蟲也.

[뜻]玩蠶(완잠): (원문 중 ‘蠶’ 생략) 『옥편』在含切. 실을 토해내는 벌레.

卷二, 38b, 印璽: 『玉篇』思比切, 天子諸侯印. 『字彙』古者尊卑共之, 秦以後惟至尊稱璽.

[뜻]印璽(인새): 『옥편』思比切. 천자 제후의 인. 『자취』, 옛날에 준비를 일렀고, 진 이후에는 오로

지 지존만을 새라고 칭하였다.

卷二, 39a, 所職: 『玉篇』職, 支力切. 主也. 業也. 記也.

[뜻]所職(소직): 『옥편』職, 支力切. 주관하다. 사업. 기록하다.

위의 여덟 가지 표제어들은 『玉篇』을 인용해 字音을 설명하는 인용문이다. 『易解大全』은 直音法과 反切法으로 『玉篇』에 기록된 직음법과 반절법을 인용해 字音을 표기하였고, 反切法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표제어²⁰⁾ 중 하나 이상의 개별 글자에 대하여 『玉篇』의 발음을 인용하였으며, 주석 내용에서 발음만 수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釋義와 함께 기록하였다.

(2) 字義

卷一, 42a, 協正: 『玉篇』云, 胡賴切. 合也. 『書』協, 和萬邦.

[뜻]協正(협정): 『옥편』에서 말하길, ‘胡賴切, 화합하다’고 하였다. 『상서』, 協, 많은 나라와 화목하다.

卷一, 2b, 非所: 『玉篇』非所當得而得, 與不可免而免, 皆曰幸.

[뜻]非所(비소): 『옥편』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얻고, 면제받을 수 없지만 면제받은 것이 **幸**이다.

卷一, 3b, 僭越: …『玉篇』僭, 子念切, 『書』天命不僭.

[뜻]僭越(참월): 『옥편』 僭, 子念切. 『상서』 천명은 어긋남이 없다.

卷一, 6b, 遐邇: 『玉篇』遐, 遠也. 邇, 近也.

19) 『玉篇』 원문: 緇, 側其切. 黑色也.

20) 『易解大全』의 표제어는 하나의 어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문장 중 한 자 이상의 글자를 표제어로 삼기도 하였다.

[뜻]遐邇(하이) : 『옥편』 遐, 멀다. 邇, 가깝다.

卷一, 19b, 借音 : 『玉篇』云, 借, 子夜切. 假也. 又子亦切.

[뜻]借音(차음) : 『옥편』에 이르기를, 借는 子夜切이고, ‘빌리다’라고 하였다. 又音은 子亦切이다.

卷二, 12b, 多寡 : 『玉篇』寡, 古瓦切. 少也.

[뜻]多寡(다과) : 『옥편』 寡, 古瓦切. 적다.

卷三, 27a, 揣摩(철탐) : 『玉篇』摩, 莫羅切, 研也.

[뜻]揣摩(철탐) : 『옥편』 摩, 莫羅切, 연마하다.

위의 일곱 표제어는 字義를 표기하기 위해 『玉篇』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字義를 인용할 때 字義만 기록하는 경우는 적고, 대체로 字音과 字義를 함께 인용하고 있음을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字形

卷二, 36a, 𪛗 : 『玉篇』云, 古昏字.

[뜻]𪛗(흔) : 『옥편』에서 이르기, 옛 ‘昏’字다.

卷四, 內轉第三十七開, 𪛗 : 從門, 非也. 『玉篇』作𪛗, 俗.

[뜻]𪛗(투) : 門을 따른 것은 옳지 않다. 『옥편』에서는 ‘𪛗’으로 삼는다. 俗字다.

卷四, 外轉第二十二合, 飣 : 諸本同之, 唯『遮中』²¹⁾及『諺解』²²⁾應改作飯字, 然『玉篇』云, 飣, 同飯, 俗.

[뜻]飣(반) : 모든 책에서 이와 같다. 오로지 『遮中』과 『諺解』에서 수정하여 飯으로 삼았다. 그러나 『옥편』에서 이르기 “飣은 飯과 같다. 속자다.”라고 하였다.

『玉篇』을 사용하여 자형을 기록한 주석은 비교적 많지 않다. 위의 예는 『玉篇』에 나타난 俗字 ‘𪛗’를 소개하고, 옛 글자의 자형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飣’은 俗字인데, 韻圖에 正字 ‘飯’이 아닌 ‘飣’을 기재하고 있다.

(4) 『玉篇』의 이름을 쓰지만, 다른 문헌을 인용한 경우

본고에서 『玉篇』을 인용한 주석 가운데 성조와 소속 운을 밝히고 있는 주석이 있음을 발견했다. 원본 『玉篇』에서는 부수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였으므로, 소속 운과 성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속 운과 성조를 표기한 『玉篇』의 주석은 원본 『玉篇』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석은 아래와 같다.

卷一, 36b, 喉也 : 『玉篇』上尤胡鉤切, 咽也.

卷三, 19a, 精熟 : 精, 『玉篇』庚子盈切, 精細不粗也.

卷三, 19b, 汧流 : 汧, 『玉篇』平先余穿切, 從流而下亦作汧.

21) 일본 大田嘉方이 지은 『韻鏡遮中鈔』를 가리킨다.

22) 小龜益英의 『韻鏡諺解大成』을 가리킨다.

卷三, 19b, 鮮: 『玉篇』平先, 思連切. 生也, 善也, 好也. 上銑 思淺切. 少也.

위의 예는 『玉篇』을 인용한 주석 가운데 일부분에서 성조와 소속 운을 밝히고 있는 경우다. 그렇다면 위의 예는 어떤 문헌을 참고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增續大廣益會玉篇』(1692)을 참조하여 기록한 것이라 추측되어 진다. 『增續大廣益會玉篇』은 毛利貞齋²³⁾에 의해 지어진 『玉篇』으로, 일본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한자 사전 중 하나다. 이 책은 간행된 이후 일본에서 『大廣益會玉篇』의 위치를 대체하는 사전으로 자리 잡았다. 『大廣益會玉篇』의 음운 정보는 오로지 反切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반면, 『增續大廣益會玉篇』의 경우, 글자의 성조와 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위의 예를 『玉篇』, 『增續大廣益會玉篇』의 원문과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卷一, 36b, 喉也: 『玉篇』上尤胡鉤切, 咽也.

[옥편]胡鉤切, 咽也.

[증속]尤胡鉤切, 咽也.

[똥]喉也(후야): 『옥편』上聲 尤韻胡鉤切, 목구멍.

卷三, 19a, 精熟: 精, 『玉篇』庚子盈切, 精細不粗也.

[옥편]子盈切, 『說文』曰, 擇也.

[증속]庚子盈切, 精細不粗也.

[똥]精熟(정숙): 精, 『옥편』庚韻子盈切, 정밀하여 투박하지 않다.

卷三, 19b, 汭流: 汭, 『玉篇』平先余穿切, 從流而下亦作沿.

[옥편]無.

[증속]先余穿切, 從流而下亦作沿.

[똥]汭流(연류): 汭, 『옥편』平聲 先韻余穿切,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것 또한 ‘沿’이라 한다.

卷三, 19b, 鮮: 『玉篇』平先思連切. 生也, 善也, 好也. 上銑 思淺切. 少也.

[옥편]思連切. 生也, 善也, 好也. 又思淺切. 少也.

[증속]平先思連切. 生也, 善也, 好也. 上銑思淺切. 少也.

[똥]鮮(션): 『옥편』平聲 先韻思連切. 생선. 좋다. 上聲 銑韻思淺切. 적다.

위의 예에서 『易解大全』이 ‘喉, 精, 汭, 鮮’에 대해 기록한 음운 정보와 『增續大廣益會玉篇』의 원문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汭의 경우, 『玉篇』에서 출현하지 않았으나 『增續大廣益會玉篇』에 등장하는 글자를 싣고 있다. 이는 盛典이 『增續大廣益會玉篇』을 참고로 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2. 『字彙』

『字彙』는 明 梅膺祚에 의해 지어진 字典으로,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萬曆 43년 序가 있는

23) 생몰년 미상. 福永靜哉, 『近世韻鏡研究史』, 風間書房, 1992, 455쪽.

간행본, 淸 姜曦 10년 西泠堂 主人 간행본, 同治 7년 紫文閣 간행본이 있다. 淸 雍正, 乾隆, 嘉慶朝 등 3대에 많이 번각되었으며, 그 판본 또한 비교적 많은 편이다. 『字彙』는 『說文解字』의 부수를 214부로 줄였고, 총 33,179자를 수록하였다.²⁴⁾ 이 책은 序에 따르면, 萬曆 43년(1615)에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易解大全』 1권에서 4권까지 『字彙』를 인용한 주석은 총 39례(중복 계산)다. 그중 19례는 字音, 33례는 字義, 나머지 2례는 기타 내용에 대해 기록하였다. 字義와 字音에 대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字音

卷三, 25b, 舛謬: 謬, 『字彙』, 靡幼切. 音謬. 去聲 詐也. 差誤也. 妄言也.

[ㄷ]舛謬(천류): 謬, 『자휘』 靡幼切. 음은 謬다. 거성인 경우, 속이다, 잘못하다, 망령된 말.

卷三, 23b, 毫釐: 毫, 『字彙』, 胡刀切. 音豪. 長毛, 又十絲曰毫. … 釐, 『字彙』, 音離.

[ㄷ]毫釐(호리): 毫, 『자휘』 胡刀切. 음은 豪다. 긴 털. 또한, 10絲를 毫라 한다. … 釐, 『자휘』, 음은 離다.

卷一, 12b, 宛: 『字彙』上阮於袁切. 宛然猶, 依然.

[ㄷ]宛(완): 『자휘』上阮於袁切. 여전히, 의연하다.

『字彙』를 인용한 주석에서 直音法과 反切法을 사용하여 字音을 설명하였고, 일부 주석에서 宛과 같이 소속 운과 성조를 반절과 함께 기록하였다.

(2) 字義

卷一, 3a, 譚柄: 譚, 『字彙』與談同. 『書』言故事六云, 與人談事云聊資, 談柄.²⁵⁾

[ㄷ]譚柄(담병): 譚, 『자휘』는 ‘담과 같다’고 하였다. 『상서』에서는 다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聊資, 談柄이라고 한다.

卷一, 4b, 韻策: 『字彙』云, 編簡爲策.

[ㄷ]韻策(운책): 『자휘』에 이르기를, 죽목간을 엮은 것을 ‘책’이라 한다.

卷二, 15b, 按字: 『字彙』按, 於幹切, 安, 考也.²⁶⁾

[ㄷ]按字(안자): 『자휘』 按, 於幹切, 安과 통한다. 조사하다.

卷三, 23b, 脉絡: 脉, 『字彙』同脈, 脈, 莫白切, 血脈.²⁷⁾

[ㄷ]脉絡(맥락): 脈, 『자휘』 ‘脈’과 같다. 脈은 莫白切, 혈맥이다.

卷三, 26a, 絃: 『字彙』胡田切. 古作絹. 音賢. 八音之絲也.

[ㄷ]絃(현): 『자휘』, 胡田切, 옛날에는 ‘絹’으로 글자를 삼았다. 음은 ‘賢’이다. 8음의 줄.

卷三, 30b, 是將: 將, 『字彙』資良切. 從也.

24) 호박안(저), 임진호·김하중(역), 『문자학의 원류와 발전』, 문현, 2009, 89쪽.

25) 『字彙』 원문: 徒含切, 音譚, 大也. 又與談同. 晉袁宏傳, 由斯而譚. 又姓. 又叶徒黃切. 音唐. 急就章, 曹當貴, 尹李桑, 蕭彭祖, 屈宗譚.

26) 『字录』 원문: 按, 於幹切, 安. 去聲, 抑也. 據也. 又按也. 又察行也. 考也. 驗也. 又撫也. …

27) 『字录』 원문: 同上(脈). 毛氏曰, 按釋名脈, 幕也. 幕絡一體也. 字从月从辰, 今从永者, 有誤也. …

〔뜻〕是將(시장) : 將, 『자취』 資良切. 따르다.

위의 여섯 표제어는 대부분 반절과 함께 字義를 수록하여 발음과 뜻을 알 수 있게 하였다.

3. 『說文解字』

『說文解字』는 漢代 許慎(58-147)에 의해 지어졌고, 총 9,353字를 수록하고 있다.²⁸⁾ 이 책은 본래 古文 經學家가 경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자의 구조를 분석하여 형체의 구조에 따라 한자를 분류한 것이다. 문헌의 내용과 성격은 글자의 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자를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여 왔다.

『易解大全』은 大徐本과 小徐本을 모두 인용하였다. 대서본은 徐鉉이 교지를 받들어 宋 太宗 雍熙 연간에 『說文解字』를 교정한 판본을 가리킨다. 소서본은 徐鉉가 지은 『說文解字繫傳』을 가리킨다. 『說文解字』를 인용한 주석은 총 49例가 있다. 그 중 30例는 字義, 18例가 字形, 1例가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說文解字』의 字義, 字形과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字義

卷三, 19a, 竊意 : 『說文』 察言而知意也.²⁹⁾

〔뜻〕竊意(절의) : (원문 중 ‘意’ 생략) 『설문해자』 말을 살펴 뜻을 알다.

卷三, 22a, 雷霆 : 霆者, 『說文』云, 雷餘聲也. 鈴鈴. 所以挺出萬物.

〔뜻〕雷霆(뇌정) : 霆은 『설문해자』에서 이르기를, “천둥칠 때 나는 소리. 광광. 이로써 만물이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卷三, 26a, 琴者 : 『風俗通』琴者, 樂之宗也. 『說文』曰, 樂者, 五聲八音總名. 宗者, 『廣韻』云, 舞也, 本也, 尊也.

〔뜻〕琴者(금자) : 『풍속통』에 의하면 琴은 음악의 정통이다. 『설문해자』에서 樂은 오성팔음의 총칭이다. 宗은 『광운』에서 “춤, 근본, 존중하다.”는 뜻이다.

卷三, 32b, 乎側 : 乎, 『說文』語平舒也.³⁰⁾... 側與仄通用. 仄, 『說文』側傾.

〔뜻〕乎側(호측) : 乎, 『설문해자』 말소리가 평화롭고 편안하다. 側과 仄은 통용이다. 側, 『설문해자』 기울어지다.

위의 표제어는 『說文解字』의 字義를 인용한 예로, 뜻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說文解字』의 字義에 대해 저자가 의견을 더한 예는 아래와 같다.

28) 복지진(지), 김현철 외(역), 『중국언어학사』, 신아사, 1997, 146쪽.

29) 『說文解字』 원문 : 志也. 從心察言而知意也. 從心從音. 於記切.

30) 『說文解字』의 원문과 『易解大全』의 인용문이 차이를 보인다. 『易解大全』의 인용문에서는 乎를 ‘말소리가 평화롭고 편안하다(語平舒也).’고 설명하였으나, 『說文解字』의 원문은 ‘말의 나머지 부분이다(語之餘也).’라고 기록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 『說文解字』 원문 : (徐鉉)乎, 語之餘也. 从兮, 象聲上越揚之形也. (繫專)乎, 乎者, 語之餘也.

卷三, 25a, 凡儒: …(儒)『說文』柔也. 術士之稱. 『徐』曰, 柔弱也. 儒之言悞也. 『相如傳』有術皆曰儒. 私云, 今言凡儒者, 所謂如名儒及通儒等歟.

〔뜻〕凡儒(범유): …(儒)『설문해자』 부드럽다. 술사의 명칭. 서씨본에 이르기를, 유약하다고 하였다. 유생의 말은 유약하다. 『상여전』에는 술책이 있는 사람을 ‘儒’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무릇 ‘儒’는 이름이 저명한 학자와 경서에 통달한 학자 등을 이른다.

(2) 字形

卷二, 34a, 天文: 『說文』𠂔, 顛也, 至高無上. 從一, 大.

〔뜻〕天文(천문): 꼭대기. 지극히 높아 그 위가 없다. 一과 大를 따른다.

卷二, 34a, 井邑: 『說文』井, 象構韓形. ●, 井之象也. 古者伯益初作井. 『徐』曰, 韓, 井垣也. 『周禮』謂之井樹. 古者以瓶甕汲. 本作井, 今文省作井. 『說文』𠂔, 國也. 從口. 先王制, 尊卑有大小. 从口.³¹⁾ 『徐』曰, 口其城郭也.

〔뜻〕井邑(정읍): 『설문해자』 井은 엷은 나무 우리를 상형하였다. 두레박의 모양이다. 옛날에 백익이 처음 우물을 지었다. 서씨본에서 말하기를, 韓, 우물 주위를 둘러싼 울타리다. 『周禮』에서 정수라 일렀다. 옛날에는 병과 항아리로 물을 길었다. 본래 井인데, 지금 글자는 생략하여 井이다. 『설문해자』邑, 나라다. 口을 따랐다. 선왕의 제도에는 존비에 따라 대소의 차이가 있었다. 口을 따랐다. 서씨본에서 이르기를, 口은 성곽이라고 하였다.

卷二, 34a, 草木: 『說文』𣎵, 從二中. 『徐』曰, 總名也. 本作艸. 凡叢生故從二艸. …

〔뜻〕草木(초목): 『설문해자』 여러 가지 풀이다. 두 개의 艸을 따른다. 서씨본에서 말하기를, “총칭. 본래 艸으로 삼는다. 무릇 艸은 생을 망라한 것이므로, 두 개의 艸을 따른다.”고 하였다.

卷二, 34b, 人物: 『說文』人, 天地之性最貴者也. 此籀文, 象臂胫之形. 隸作人. 人有十等, 自王公至卑隸.

〔뜻〕人物(인물): (원문 중 ‘人’ 생략) 『설문해자』 천지의 품성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주문으로, 팔꿈치를 상형하였다. 隸書로는 ‘人’으로 쓴다. 사람은 10등으로 나뉘고, 왕궁에서부터 卑隸까지다.

卷二, 38a, 簡冊: 『小補』云, 溝上, 賈限切. 簡, 『說文』牒也. … 『說文』符命也. 諸侯進受於王也. 象其札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當作𦰩, 今文皆作冊. …

〔뜻〕簡冊(간책): 『운회소보』에서 이르기를, 溝韻 上聲, 賈限切이다. 簡, 『설문해자』, 부명. 제후가 나아가 왕으로부터 받는다. 길고 짧은 죽간의 가운데를 두 개로 엮은 모양을 상형하였다. 마땅히 𦰩으로 삼아야 하지만, 今文은 모두 冊으로 삼는다.

4. 『類篇』, 『五音篇海』

『類篇』은 司馬光(1019~1086) 등 송나라 학자들이 임금의 칙명에 따라 편찬한 字書로, 王洙, 胡宿, 張次立, 范鎮 등이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마광에 의해 정리되었다. 1069년에 총 15권이 완성되었다. 『集韻』

31) 『說文解字』 원문: 邑, 國也. 從口. 先王之制, 尊卑有大小, 从口. 원문에서는 ‘口’으로 기록하였고, 『易解大全』에서는 ‘口’로 판각되었는데, 이 두 자는 同字다.

을 완성할 무렵 이에 호응하는 字書を 편찬할 것을 임금에게 건의한 기록이 있다. 『類篇』은 총 31,319자를 싣고 있는데, 『說文解字』의 체재를 본받았으므로 부수자의 종류와 배열이 대부분 동일하다.³²⁾

『易解大全』 주석에서 인용된 『五音篇海』는 『四聲篇海』라고도 불리며, 금대 韓孝彥·韓道昭 父子가 지은 『改併五音類聚四聲篇海』(1208)의 약칭이다. 주석에 따르면, 『類篇』과 『五音篇海』의 내용은 “越前妨岐菴難”에서 간접 인용한 것이다. “越前妨岐菴難”은 일본의 문헌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類篇』과 『五音篇海』는 『易解大全』에서 등장하는 횃수가 비교적 적다.

捰：諸本不出之，唯『指南抄』出之。越前妨岐菴難當本云，捰，『類篇』普撰切，³³⁾ 『字彙』馬韻，音派，並入次清行，又『類篇』及『五音篇海』爲丈買切。…

[뜻]捰：모든 판본에서 수록되지 않았고, 오로지 『지남초』에서 출현하였다. “월전방기엄난”에서 이르기를, 捰은 『유편』에서 普撰切, 『자휘』는 馬韻, 음은 派, 또한 次清行에 들었다. 또한, 『유편』과 『오음편해』에서 丈買切로 삼았다. …

㉔³⁴⁾：諸本多出灑³⁵⁾字，『字彙』卷末「直」，「橫」二圖亦出之，今當本所傳，且隨『類篇』等子小切，屬勦字子也。

[뜻]㉔：많은 판본에서 灑字가 출현하였다. 『字彙』 권말의 「직도」와 「횡도」도 또한 싣고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판본에서는 또한 『유편』에 따라 子小切이며, 勦의 동음자에 속한다.

5. 其他

『易解大全』에서 “字書”라는 이름으로 인용된 주석은 10例가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易解大全』의 字書 인용 주석은 字書類 문헌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와 서명으로서 “字書”를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字書類 문헌으로 쓰인 주석은 아래와 같다.

兌，地：『法華經』第八陀羅尼音注云，地，途賣切，正憑切，兌字子，此反切非字書音，是梵語體譯音也。途，徒字子。

[뜻]兌(테), 地(지)：『법화경』 제8권 다라니품의 음주에서 말하기를, 地는 途賣切, 正憑切로, 兌의 동음자다. 이 반절은 字書音이 아니다. 범어체 역음이다. 途는 徒의 동음자다.

匡：『遮中』，『諺解』出筐，是字子也。『大字』³⁶⁾ 恚，恚書失乎。字書多屬去。『遮中抄』作筐。

32) 황덕관·진병신(저), 하영삼(역), 『한어문자학사』, 동문선, 2000.

33) 『易解大全』은 捰의 『類篇』 반절을 “普撰切”로 기록하였으나, 『類篇』은 捰를 “柱買切”로 수록하였다.

34) 『易解大全』은 韻圖에서 빈칸으로 남겨진 일부 글자에 대하여 원문자를 추가하여 주석을 달았다. 이 주석은 『易解大全』에서 글자를 수록하고 있지 않으나, 기타 일본 『韻鏡』 연구서에서 글자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주로 담고 있다.

35) 『易解大全』의 원문에 나오는 ‘灑’는 ‘灑’의 誤記다. 『類篇』에서 ‘灑’의 반절은 良何切이고, ‘勦’는 初交切, 鋤交切, 子了切, 子小切, 子肖切, 子六切이다. 그러나, ‘灑’와 ‘勦’는 발음이 서로 다르므로, 字子에 속하지 않는다. 『韻鏡字子』에서 灑는 ‘勦’字子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易解大全』 중 ‘灑’는 판각 상의 오류로 추정된다.

36) 『大字韻鏡』을 일컫는다. 『大字韻鏡』은 일본 清原宣賢(1475~1550)이 교정하여 간행한 『韻鏡』이다.

[뫼]匡(광) : 『차중』, 『언해』는 筐이고, 이는 동음자다. 『대자』에서 愬, 愬으로 잘못 보았다. 자서에
서 대부분 거성에 속한다. 『차중초』는 筐으로 삼았다.

“字書”를 한 권의 서명으로 쓴 경우는 아래와 같다.

花 : 『廣韻』呼瓜反, 華, 戶花切. 字書, 華同華.

[뫼]花(화) : 『광운』에서는 呼瓜反, 華는 戶花切이다. 字書에서 華는 華와 같다.

㉠ : 『諺解』出撿, 字書丘禁切.

[뫼]㉠ : 『언해』에서는 撿이 출현한다. 자서는 丘禁切이다.

外轉第二十二合圖 辮 : 『指南』同之, 『廣韻』居願切, 『小補』俱願切. 『集韻』作辮. 『遮中』, 『諺解』等作
从力. 字書辮从刀, 烏還切, 削也. …

[뫼]辮 : 『지남초』는 이와 같다. 『광운』에서는 居願切, 『소보』에서는 俱願切이다. 『집운』에서 ‘辮’으
로 삼는다. 『차중』과 『언해』는 力을 따르고, 字書에서는 辮으로 刀을 따라 烏還切, ‘깎다’는 뜻이다. …

위의 인용문에서 “字書”는 반절, 자형을 위하여 수록되었다. “字書”라는 문헌에 대한 기록은 劉葉秋의 『中國字典史略』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中國字典史略』(2015)에 따르면, 위진남북조에 ‘失名 字書’가 존재하였는데, 이 책의 초판본이 『說文解字』이고, 宋本 『玉篇』,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참고 자료로써 활용되었다고 설명한다.³⁷⁾ 특히, ‘撿, 辮’과 같이 자서에서 나타난 반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 다. 따라서 인용문 중 “字書”는 “字書”라는 특정 문헌에 대한 지칭, 또는 盛典이 참고하였던 여러 자서를 통칭하는 단어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IV. 나오며

胡適(1891~1962)은 고서를 연구하는 법에 대하여 “경서 연구든 자서 연구든 모두 校勘과 訓詁를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治古書之法, 無論治經治子, 要皆當以校勘訓詁之法爲初步).”고 말하였다.³⁸⁾ 교감과 훈고에 앞서, 주석의 인용 문헌 정리는 저서의 내용을 고증하며, 저자가 영향을 받은 사상과 저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인용 문헌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저자의 뜻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자의 계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新增韻鏡易解大全』에 대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고에서는 『新增韻鏡易解大全』 중 인용된 자서 문헌을 소개하고, 字書を 인용한 주석을 분석하였다.

『易解大全』의 주석을 살펴본 결과, 저자 盛典이 문자에 대한 훈고와 고증을 대단히 중시했다는 점을 알

37) 劉葉秋, 『中國字典史略』, 北京出版社, 2015, 87쪽.

38) 왕요남(저), 신승운 외(역), 『주석학개론1』, 한국고전번역원, 2014, 54쪽.

수 있었다. 특히, 이전 시기의 『韻鏡』 연구서 및 『韻鏡易解』와 달리, 훈고와 고증의 근거로 字書를 인용하여 방대한 양의 주석을 추가한 점을 들어 말할 수 있다. 인용 빈도가 높은 자서로 『玉篇』, 『字彙』, 『說文解字』가 있고, 이들 문헌으로부터 자음, 자의, 자형 등을 참고하여 논의하였다. 인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문헌으로는 『類篇』, 『續字彙補』, 『五音篇海』 등이 있었다.

『易解大全』은 이들 字書 문헌을 인용해 각 글자의 총체적 면모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로써 字典 및 辭典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반절법뿐만 아니라 직음법도 사용하여 그 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玉篇』, 『廣韻』, 『字彙』 등의 소학류 문헌을 함께 주석에 수록하여 자음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주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易解大全』 주석은 “쉽게 풀이한다(易解)”는 서명처럼 처음 『韻鏡』을 접하는 초학자들에게 예도 시기 『韻鏡』 입문서로서의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 사료 된다.

〈참고문헌〉

- 『宋本玉篇』影印本,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3.
- 『字彙』, 梅應祚, 續修四庫全書 232, 233冊, 經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說文解字』, 徐鉉, 影印文淵閣四庫全書 233冊,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說文繫傳』, 徐鉉, 影印文淵閣四庫全書 233冊,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類篇』, 司馬光, 影印文淵閣四庫全書 225冊, 臺灣: 商務印書館, 1986.
- 『改併五音類聚四聲篇海』, 續修四庫全書 229冊, 經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續字彙補』, 일본 早稻田大學 도서관 소장, 寬文 9년본(1669).
- 『韻鏡易解』, 일본 盛岡市中央公民館 소장 元祿 4년본(1691).
- 『新增韻鏡易解大全』, 일본 早稻田大學 도서관 소장 享保 3년본(1718).
- 『韻鏡指南鈔』, 일본 早稻田大學 도서관 소장 延享 元年本(1744).
- 『增續大廣益會玉篇大全』, 일본 早稻田大學 도서관 소장 嘉永 7년本(1854).
- 곽재이(저), 이종진·이흥진(역), 『훈고학입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 복지진(저), 김현철 외(역), 『중국언어학사』, 신아사, 1997.
- 왕요남(저), 신승운 외(역), 『주석학개론1, 2』, 한국고전번역원, 2014.
- 호박안(저), 임진호·김하중(역), 『문자학의 원류와 발전』, 문현, 2009.
- 황덕관·진병신(저), 하영삼(역), 『한어문자학사』, 동문선, 2000.
- 劉葉秋, 『中國字典史略』, 北京出版社, 2015.
- 李無未, 『日本漢語音韻學史』, 商務印書館, 2011.
- 李無未·裴規利, 「日本盛典『韻鏡易解』“形而下”功能說－『皇極經世』術數等韻圖東亞輻射模式」, 漢學研究, 38: 1, 2020.
-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出版社, 1986.
- 何瑞, 『宋本「玉篇」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 望月信亨(編), 『(望月)佛教大辭典』, 世界成典刊行協會, 1974.
- 福永靜哉, 『近世韻鏡研究史』, 風間書房, 1992.
- 中澤信幸, 『中近世日本における韻書受容の研究』, おうふう, 2013.
- 中澤信幸, 「『韻鏡』研究における理論と実用: 盛典『韻鏡易解』『新增韻鏡易解大全』と『韻鏡字子列位』」(口頭発表, 日本語学会2004年度春季大会研究発表会発表要旨), 2004.
- 中澤信幸, 「『転図字書』の発生と盛典－『韻鏡』研究における理論と実用」, 名古屋大学国語国文学, 99, 2006.
- 湯沢質幸, 「近世韻学における呉音漢音の分類－韻鏡易解から磨光韻鏡へ」, 訓点語と訓点資料, 113, 2004.

* 이 논문은 2022년 6월 10일에 투고되어,
2022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7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7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f Cited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in The Annotation of Jōten's *The Complete Collection of New Supplement Edition of Yùnjìng Yìjiě*

Bae, Gyuree*

This paper introduced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analyzed the annotations which cited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in *the Complete Collection of New Supplement Edition of Yùnjìng Yìjiě*. When *Yùnjìng Yìjiě*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into *the Complete Collection of New Supplement Edition of Yùnjìng Yìjiě*, it added a large amount of annotations in *the Complete Collection of New Supplement Edition of Yùnjìng Yìjiě*. Among the references, some books, such as *Yùpiān*, *Guǎngyùn*, *Zìhuì*, occupied high frequency of citation and they used for explaining the shape, sound and meaning of each Chinese character. Like as the name of the book “Yìjiě(易解)”, which means “make it easy to understand”, the book acts as an introduction to the beginner during Edo period who first encountered *Yùnjìng*.

[Keywords] Jōten, The Complete Collection of New Supplement Edition of Yùnjìng Yìjiě, Cited Books,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Annotation

* Instructor, Dankook University, Foreign College, Chinese Department